



오로도 칼럼



강인수

신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남구문화의 발전을 위한 두어 가지의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 곁에 있는 것 현존하는 것에서 오순도순 문화를 가꾸어 나가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어려운 장조를 하려 하지 말고 우선 존재하는 것을 모방해 보려 해야 합니다.

현재는 상상과 장조를 중요시하

는 시대이지만, 따지고 보면 장조도 이미 존재하는 것을 발견하여 관찰하고, 실험하고, 응용하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IT 기술의 가장 애플의 스티브 잡스와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는 결코 새로운 평가를 발명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남의 아이디어를 도용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평가를 찾고 최선의 것이 발견되면 그것을 가져와서 변용했을 뿐입니다.

우리 남구에는 아주 우수한 문화적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산업 경제적 측면으로는 해안선을 따라 줄지어 있는 우암 용담의 부두들과 새로 설립되고 있는 문현

동의 금융단지, 문화시설로는 수십 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부산박물관과 부산문화회관, 이제 곧 개관할 부산예술회관, 그리고 세계적인 명소 유엔기념공원이 있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자연 풍광의 오륙도와 이기대 공원, 용호만의 천수공간이 있고, 교육기관으로는 부경대 경성대 동명대 부산외대 등 우수한 대학들도 있습니다.

우리 곁에 현존하고 있는 이런 문화적 시설과 자연을 잘 이용하고 가까이 한다면 얼마든지 문화의 혜택을 누릴 수 있고 문화의식을 높여 우리생활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안하는 것은, 작은 것에서 하나씩 이루어 나가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빌 게이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꿈은 내 어린시절 시골의 작은 도서관에서 이루어졌다."

남구문화원은 작지만 짜임새 있는 각종의 강좌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내 집 가까이 있는 문화원에 가시면 얼마든지 나의 문화적 소양을 쌓을 수 있고 같은 취미와 문화의식을 가진 사람들과 친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 스스로가 자발적인 모임을 가져 각종 문화와 예술 오락의 동호회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청년회 부인회 노인회 등의 모임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유대 의식을 가지게 되고, 소외에서 탈피하여 문화와 예술의 소양을 살릴 수 있습니다.

멀리 있는 것은 좀 제쳐 두고 내

가까이에 내 이웃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여 오순도순 문화를 가꾸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부문화의 확산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면은 물론이겠지만 지식과 기술을 무료로 제공하는 기부문화가 이루어져야 문화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빌 게이츠는 2007년 하버드대학 졸업식장에서 '창조적 자본주의'에 대해 강의를 했습니다. 그 핵심을 옮겨보면 이러 합니다.

"나는 하버드를 중퇴할 때 엄청난 세상의 불평등에 대해 거의 자각하지 못했다. 수백만의 사람들을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건강과 부, 기회의 가장할만한 격차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것을 알게 되는데 수십 년이 걸렸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가난한 나라에서 소아마비, 말라리아, 홍역, 폐렴과 같은 이미 치료제가 개발되어 있는 병으로 수백만의 아이들이 죽어가는 현실에 충격을 받았으며 그 아이들이 그렇게 허무하게 죽어간 이유는 단지 그들의 엄마 아빠가 아무런 힘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개탄했습니다.

곧 창조적 자본주의란 가진 자가 굶주리고 병든 자를 위해 기부하고 봉사해야 자본주의가 발전한다는 논리입니다.

남구에는 경제적으로 지식적으로 기술적으로 가진 분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 기부와 봉사 정신을 발휘할 때 우리 남구문화는 더욱 꽃이 필 것입니다.

문화는 주민 스스로가 가까운 내 이웃에서 오순도순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용호1동·전 부산문인협회장



<180>



남부중·고등학교 학생 모집

- 대상 : 청소년, 성인(남·여)
- 인원 및 기간 : 제한 없음, 수시모집
- 연락(교무실) : 622-1205, 010-4544-4734

밥상머리 예절교육

■나의 생각

고등학생 아이 두 녀석이 반찬투정을 한다. 그러면서 피자 타령을 했다. 눈을 흘기며 인스턴트식품의 위해성과 우리 쌀이 소비가 안돼 농민들이 고충을 겪는 얘기까지 설명을 해봤지만 아이들은 쉽게 이해하려 들지 않으니 참...

예부터 밥상머리 예절이 가정교육의 첫걸음이라고 했다. 먹을 것이 많지 않아 콩보리밥에 섞인 쌀알을 세는 게 더 쉬운 정도로 가난하고 힘든 시절, 그래도 밥 먹을 때만큼은 예절과 법도가 따랐다.

요즘 아이들이야 치킨에 피자에 햄버거에 라면까지 먹을게 넘쳐나서 배부른 투정을 하지만 그때는 보릿고개라는 게 태산처럼 버티고 있었어.

보릿고개가 시작되면 한 동네가 모두 비슷한 처지와 양식을 꾸어올 데도 없고 꾸어올 사람도 없었다. 할 수 없이 아직 머물지 않은 보리이삭을 태워 가루로 만든 다음, 초근목피(草根木皮)를 넣어서 죽을 쑤어 먹는다. 며칠 동안만 이렇게 먹으면 변(便)이 굳어져 배설할 때 항문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겪는다. "×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은유적 표현도 이렇게 비참하게 가난한 때를 빗대 생겨난 말이다.

얼마 담겨져 있지 않은 보리밥그릇. 배가 고프니 밥을 앞에 두고 천천히 먹는다는 게 애초부터 무리다. 그나마 애써 천천히

먹어도 아버님은 왜 그렇게 진지 드시는 속도가 늦으시는지, 그리고 내가 식사를 먼저 끝냈다고 한들 아버님보다 먼저 숟가락을 놓았다가는 불효령이 떨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릴 때부터 밥 먹는 것 하나부터 고행이 없었던 그게 큰 가르침이었다.

예들은 어른보다 먼저 숟가락 놓고 자리를 뜨면 안되는 법이라는 가르침, 식사는 그저 배고픔을 잊기 위한 동물적 행동이 아니라라는 것, 법도 있는 식탁에서 편식을 고쳤고, 어른이 수저를 들기 전에는 참아야 하는 인내를 배웠고, 모자라는 밥을 양보하라는 어머니의 사랑을 배웠다.

또한 밥상 앞에서 어른이 먼저 수저를 놓기 전에 자리에서 일어선지 않도록 배웠고, 식기와 수저를 덜그럭거리며 부산하게 먹어서도 안된다는 것까지.

아이들에게 먹여볼 참으로 어느 날은 아내더러 보리밥을 부탁한 적이 있다. 그러나 예비의 기대와 달리 아이들은 이내 고개를 돌린 채 "쌀밥 쥐"를 연발한다. 아무래도 시간이 필요할 듯 하다.

가족이 단란하게 하루 일을 이 야기 하며 마주하던 밥상에서 행해지던 전통적인 인성교육이 궁극적으로는 지성과 인성이 겸비된 탄실한 인재를 기를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김석원 (대원1동)

독자의 소리

독자의 소리란은 독자 여러분에게 활짝 열린 공간입니다. 권위의 시정사항이나 미담사례를 보내주시면 채택된 원고에 대해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부산남구신문편집실 ☎ 607-4075, FAX 607-4374, bns4075@korea.kr

맨을 위 장판 걷어내자

구청 건설과 하수를 담당하는 분께 건의 드립니다.

동네 실개천 맨홀에 장판지나 고무판을 걸어서 햇빛도 들고 공기도 잘 통해 지린내가 빨리 빠져 나가워치가 없는 우리 동네를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통, 반을 통해 요소마다 홍보지를 부착해 주민께 널리 알리고 계도해 주길 바랍니다. 주민들도 밤 소변을 모아두지 말고 제 때 제 때 버리면 동네나 구 전체가 지린내 나지 않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아침이면 지린내 때문에 구역질이 나고 머리가 아프다. 구에서 널리

홍보하여 지린내와 하수 악취가 없는 동네를 만들어 주길 바랍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단말마에 그치는 홍보가 아니라 여러번 집중적으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에 나서 쾌적하고 살기좋은 남구를 만들어 주길 바랍니다. 허정수(문현4동)

구청광장 체조교실 개설을

대연동에 새창사가 들어서면서 주변 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주민들의 자부심도 대단히 커졌다.

이제는 제법 많은 사람들이 아침 저녁으로 운동을 하는 모습도 보이고 어가를 즐기는 주민들도 쉽게 눈에 띈다. 너른 광장과 철마가 피는

디지털 세상 아쉬워

연말연시가 되면 어릴 적에는 친구들과 함께 문방구에 가서 서로 예쁜 카드와 아름다운 종소리 나오는 카드를 보며 구입하던 시절이 생각

김도훈(대연3동)



독자의 눈

남구청 앞을 지나 문현동 방면으로 가다보면 수영로와 접하는 이런 도로가 있다. 이곳은 간판업체와 오토바이 상점 등에서 무단 주차한 차량으로 통행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교통사고 예방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김도훈(대연3동)

■독자의詩

외할머니의 공부

우리 외할머니는

만덕에 사신다

내가 가면

"아이고, 우리 택이 왔다."

하시며 용돈을 주신다

일만 원씩 주니 용돈 걱정은 문제 없다

우리 할머니는 지금

한글 공부 중이다

어찌나 열심히

식당 가면 운운 말만 한다

"오리훈제, 장어구이,

만덕식당, 돼지바비큐....."

오리 고기집을 지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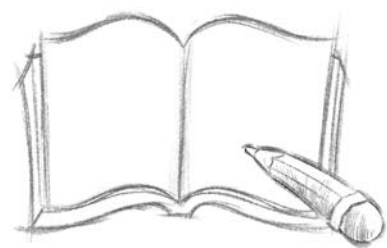
할머니 목소리가 귀에 들린다

할머니가 한글을 다 떼고

영어를 배운다면

내가 모르는 단어를

물어볼까봐 겁이 난다



■살며 생각하며

천사표 아내



유병양

나는 조그만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남들이 눈여겨 봐주는 사무직도 아니며 그냥 공장에서 기계 돌아가는 것 관리하는 정도이다. 솔직히 말해 옛날에는 공돌이라고 많이들 부르는 직업이다.

동창회 모임 때 다같이 모인 자리에서 좀 많이 배우고 잘난 친구들이 "연봉이 어떻게, 대기업이 어떨래, 미국 유럽 해외 출장이 어땠네"라며 말들 할 때 구석 한 켠에서 고개 숙인 채 대화의 소재가 다른 쪽으로 옮겨 가기만을 기다리던 때도 있었다. 남들처럼 잘 나가나 직장에서 보수가 많지 않

기 때문이었다.

"젖은 손이 애저로워 살며시 잡아 주면 손~"

오늘 문득 이 노래가사가 떠오른다. 남편의 적은 월급, 그 때문에 늘 넉넉하지 못한 살림살이를 꾸리느라 제대로 사고 싶은 것도 못사는 아내를 보기에 너무 미안해서다. 아내는 자기를 위해 쓰는 돈에는 그렇게 인색하면서도 시부모, 남편, 아이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 잘해주려고 한다. 요즘 정말 찾기 힘든 천사표 아내다.

얼마 전 어머니 생신을 맞이했을 때는 비싼 코트를 하나 사서 선물로 드렸던 모양이다.

어머니의 입이 귀에 걸려서 전화를 하셨다. "웃이 억수로 따뜻하다 안하나. 돈 너무 많이 쓴 거 아يا가?"

전혀 뜻밖의 연락에 어찌 된 건지 물었더니 요즘 짬짜미 마트에 나가 체소를 다듬어 주며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 좀 모은 걸로 사드렸단다. 아내의 효심에 눈물이 날 지경이었다.

용호2동